2006년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1월 16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모시고 회원사 대표 및 임원 그리고 에너지관련 기관, 단체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2006년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한준호 한국에너지협의회 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국가적 숙원사업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확정과 반세기만에 북한의 개성공단 전력 공급이라는 역사적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해 에너지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자급률 제고 등 국내외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으며, 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에너지협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2013년도 WEC 세계에너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국내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증대시켜 수출산업으로 자리잡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금년에도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는 한편, 에너지 강국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또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에너지정책을 수립, 에너지정책의 수용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산유국-소비국간의 대화체널 등 국제공조를 통해 에너지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에너지 자원기술의 통합적 개발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경제 이행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쾌적한 에너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Energy Help'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각계각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국민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에너지관련 산·학·연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하였다.

2006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2월 22일 한전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 및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한준호 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협력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한 에너지업계의 협력사업과 WEC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등 회원사의 이익증진 기여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열린 제42차 이사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고 임기 만료된 이사 3명과 신임이사 1명을 선임하였다.

이번에 임기만료된 이사인 황두열 한국석유공사 사장, 송인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재학 (주)효성 사장 등 3명은 유임되었으며, 신임이사에는 WEC 아태지역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새로이 선임되었다.

이어서 개최된 제43차 이사회에서는 김영훈 이사를 부회장으로 추대하고 상임이사/사무총장에 이재걸 전 산업자원부 감사담당관을 새로이 선임하였다.

따라서 부회장은 김지엽 대한석탄공사 사장, 신헌철 SK(주) 사장, 이중재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임성춘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등 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부회장

김 영 훈 회장
(대성그룹)

이 사

황 두 열 사장
(한국석유공사)

이 사

송 인 회 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이 사

김 재 학 사장
(주)효성)

상임이사

이 재 걸 사무총장
(한국에너지협의회)

김영훈 부회장은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 및 대구도시가스(주)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이재걸 상임이사는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장, 홍콩 상무관 등을 역임하였다.